



스티로폼 재활용률 점진적 상승 2005년 재활용률 67% ... 수출 570억

스티로폼 재활용률이 재활용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점진적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회장 김흥기 : 금호석유화학 사장)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스티로폼 재활용률이 67.1%에 달했으며 스티로폼 재생원료 및 제품 570억원 상당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 스티로폼 재활용 제품들

스프 등 스티로폼 원료 제조업체 6개사와 스티로폼 포장재 가공업체 모임인 한국EPS형물협의회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생산자 280여개 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2003년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협회는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성공적으로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지난해 스티로폼 포장재의 총 발생량은 3만 8,295톤, 그 중 67.1%인 2만 7,712톤이 재활용되었으며 이중 20,230톤(57,887천 달러)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 재생원료와 제품으로 수출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지난해 재활용된 스티로폼을 용도별로 보면 재생수지로 2만 3,809톤(92.6%), 경량폴로 1,054톤(4.1%), 섬유코팅제로 848톤(3.3%)이 재활용되었다. 또한, 배출처 별로는 가전대리점이 가장 많은 5,050톤, 가정 및 일반업소가 5,043톤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백화점 및 유통업체가 4,822톤, 농수산물상이 4,613톤 순으로 분리 회수 재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스티로폼은 재생수지 뿐만 아니라 욕실발판, 사진액자, 건축용 합성목재 등 다양한 플라스틱 재생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다. 또한 동제품들은 환경마크 및 GR마크를 획득하였다.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스티로폼 포장재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지난 93년 발족한 단체로 금호석유화학, 동부한농화학, SH케미칼, LG화학, 제일모직, 한국바

수행해왔다.

스티로폼은 폴리스티렌 수지에 펜탄 또는 부탄 등의 탄화수소 가스를 주입시킨 후 이를 증기로 부풀린 발포제품으로 체적의 98%가 공기이고 2%만이 원료인 자원 절약형 소재로서 완충성과 방수성, 보온성, 경량성 등이 뛰어난 제품이며 현재 가전제품의 포장재, 농수산물 상자, 주택단열재, 양식용 부자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용 후 버려지는 스티로폼은 가정의 경우 지자체가 수거하고 있고 가전대리점은 역루트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점이나 다량배출업체는 회수하여 감용하거나 재생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법적 의무화 되었다. ◀

<참고>

- 스티로폼과 스티로폼의 차이 : 동일제품을 업계 및 사용자들은 스티로폼로, 언론사 등은 스티로폼으로 부르고 있음. 그러나 화학명은 발포스티렌(Expanded Poly Styrene)이며 스티로폼(Styropor)과 스티로폼(Styrofoam)은 각각 독일 바스프사 및 미국 다우케미칼사 제품의 상표명임.



연합회 임원과 환경부장관간 간담회 개최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는 지난달 22일 15시 환경부장관 접견실에서 이치범 환경부장관과 연합회 이상호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 및 지역협의회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1시간여에 걸친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측은 제2회 환경기술인의 날 기념식 추사 및 포상요청과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분리 실시 및 환경기술인력 의무고용 완화 반대 등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이 장관은 연합회의 현실적인 요청사항에 동감하고, 향후 지원사항 등을 배석한 김형섭 환경기술과장에게 지시했다. 이날 주요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 현재 환경보전협회에서 독과점으로 20년 이상 실시해 오고 있는 법정교육을 타 직능기술단체와 분리 실시하여 경쟁체제를 유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피교육자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로 건의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상호 방안 모색 = 환경기술인력 의무고용 완화로 지난 97년도경 약 4,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현재 고급인력이 실직 또는 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분야 만큼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중점 육성하고 기술 인력의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환경기술지원사업(환경홍탁터제) = 현재 각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관주도형 기술지원사업으로 인해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업장에서 기피현상(현장 노출을 꺼려

함)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지원팀에 해당분야 실무전문기술자가 참여하지 않아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연합회측은 효과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양대 경쟁체제 구축 또는 지역환경기술센터와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19개 지역협의회 해당실무분야 전문가 동수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대안제시 했다.(예산 지원이 필요함)

△환경기술인력 의무고용 완화 반대 = 환경기술인 의무고용 완화로 비전문가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운영관리 함으로써 위반횟수 및 적발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환경기술자 격증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되어 환경전문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려고 하는 인력이 감소하고 이공계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지구환경은 점점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방했다.

△환경실무교육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 요청 = 환경기술인력 육성 차원과 현장실무교육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실무전문가 교육과정을 민간전문단체에서 실시함에 정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

〈환경부장관 간담회 연합회측 참석자 명단〉

-연합회측 참석자 : 이상호 회장, 김우식 수도권부회장, 박천상 중부권부회장, 한상온 호남권부회장, 이영서 이사, 이성진 이사, 원유희 감사, 이성호 경기회장, 권기태 반월시화회장, 도주환 대구경북회장, 김병오 사무국장